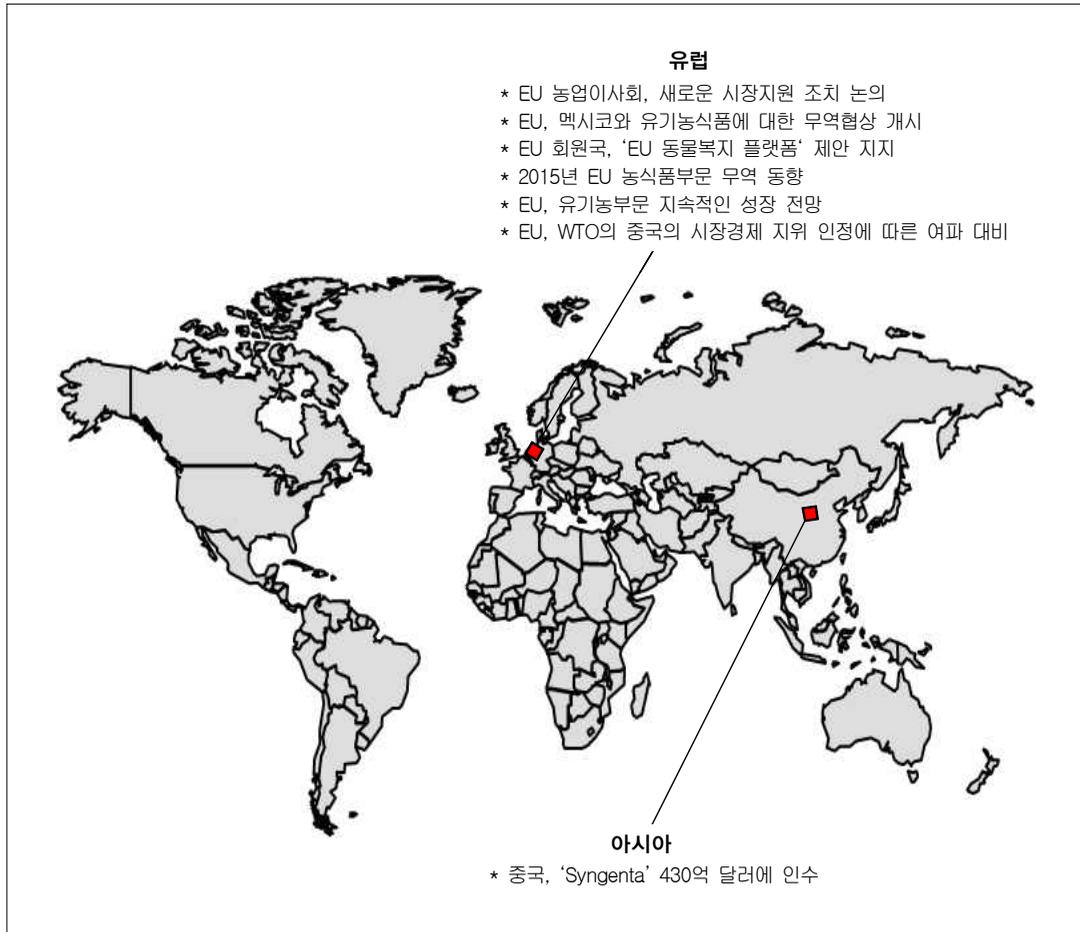


해외 농업·농정 동향

1. EU농업이사회, 새로운 시장지원 조치 논의
2. EU, 멕시코와 유기농식품에 대한 무역협상 개시
3. EU 회원국, 'EU 동물복지 플랫폼' 제안 지지
4. 2015년 EU농식품부문 무역 동향
5. EU, 유기농부문 지속적인 성장 전망
6. EU, WTO의 중국 시장경제 지위 인정에 따른 여파 대비
7. 중국, 'Syngenta' 430억 달러에 인수

해외 농업·농정 동향 (2016. 3)



EU 농업이사회, 새로운 시장지원 조치 논의

□ EU 농업이사회, 새로운 시장지원 조치 논의 약속

- EU 내 각 국 농업부 장관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한 EU의 새로운 시장 지원조치에 대해 2월 25일까지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청받았음.
 -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사항들은 3월 중순에 논의하기로 약속함.
- 금주(2월 15일) EU 농업이사회(Farm Council)에서 합의된 계획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3월 초까지 각 국 장관들의 의견을 취합하며, 다음 농업이사회 회의(3월 14일)에서 구체적인 조치사항에 대한 합의점을 찾기로 하였음.
 - 논의될 시장개입 조치로는 돼지고기에 대한 개별저장지원금 제도와 낙농업 지원 제도의 활성화, EU의 '수출 차관' 시스템 개설 등이 포함되어 있음.
- EU의 수출 차관시스템에 대해서 EU 농업 및 농업발전 집행위원회 집행위원(Phil Hogan)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집행위원(Phil Hogan)은 낙농업과 돼지고기 부문의 위기가 장기화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모든 지원정책은 회원국 다수의 지지를 받아야 하며 EU의 법적, 재정적 한계를 초과할 수는 없다고 밝혔음.
- 집행위원(Phil Hogan)은 농업이사회에서 각 국 대표단으로부터 다양한 우려와 의견을 접했음.
 - 폴란드와 스페인은 농업인들을 돕기 위한 EU의 신속한 개입을 탄원하였음.
 - 네덜란드 농업부 장관(Martijn van Dam)과 집행위원(Phil Hogan)은 3월 14일의 농업위원회에서 28개 회원국 모두의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모으고, 상황을 평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음.
- 각 국 대표단은 2월 25일까지 제안사항을 제출해야 함. 그리고 각 국 대표는 제안사항에 대해 3월 7일의 농업특별위원회(Special Committee on Agriculture, SCA)에서 논의하게 되며 EU집행위원회는 1주 후의 농업이사회를 위해 개요 자료를 준비하기로 함.

- EU집행위원회는 3월의 회의를 대비해 입장을 정리할 것이며, 네덜란드 농업부 장관(Martijn van Dam)은 회의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함.

□ '위기' 임은 인정, 그러나 안계도 명시

- 금주의 회의가 끝나고 집행위원(Phil Hogan)은 기자들에게 여러 부문에서의 위기가 있다는 공통적인 견해가 있었다며, 집행위원으로서 많은 농업인의 어려움에 대해 우려가 많다고 밝혔음.
 - 그는 생산자들을 돕기 위해 새롭거나 혁신적인 정책들을 고려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세 가지의 한계도 존재한다고 밝힘.
 - 세 가지 한계란, 어떤 정책이든 시행을 위해서는 EU이사회에서 다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EU의 법률에 저촉되어선 안 되며, 재정적 한계는 무한하지 않다는 것임.
- 새로운 정책으로 2016년 공동농업정책의 위기 예비자금(Crisis Reserve)을 이용하게 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것은 농업인들의 자금을 다시 분배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각 국 장관들이 지지하는 방안은 아니라고 밝힘.
 - 위기 예비자금은 대부분 직불지원금에 대한 감축으로 마련된 자금임.
- 3월의 회의에서 논의될 지원조치 중 하나로는 일종의 EU 수출 차관 기구가 있음. 이는 지난주 프랑스가 제시했던 아이디어 중 하나임.
 - 집행위원(Phil Hogan)은 독일을 포함한 10개 회원국이 이미 수출 차관 정책을 적용했으며 따라서 EU 수준의 차관 기구 형성에 대한 EU이사회 지지 또한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음.
 - 금주 농업이사회 회의에 앞서 집행위원(Phil Hogan)은 프랑스 농업부의 장관(Stéphane Le Foll)을 만났으며 프랑스의 제안사항에 대해 좀 더 논의하기 위해 2월 19일에 프랑스 수상(Manuel Valls)과 장관(Le Foll)을 파리에서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음.
- 프랑스 장관(Le Foll)은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 벨기에, 루마니아,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발트 해 3국 등 나머지 27개국 대표단 중 거의 절반이 프랑스가 제시한 EU 차원의 수출 차관기구 설립을 지지하였다고 밝혔음.

- 그러나 독일은 많은 농업인들이 위기에 처해있다는 사실에는 동의했지만, 더 이상의 시장 개입 조치에는 반대했다고 덧붙였음.

○ EU의 농업인 단체 Copa-Cogeca는 농가들이 체감하는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개입이 없다면 많은 생산자들이 파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 그리고 모든 회원국들이 2월 25일까지 강력하고 신뢰할만한 정책들을 제시해 주기를 촉구하였음.

□ 폴란드, 돼지고기와 낙농업부문 지원 요청

○ 금주의 오찬회의 이전에 폴란드의 농업부 장관(Krzysztof Jurgiel)은 각 국 장관들에게 폴란드의 낙농업과 돼지고기시장 상황에 대해 설명함.

- 그는 유제품에 대한 개별저장지원금과 시장개입 조치, 돼지고기에 대한 개별 저장지원금 조치가 해당 부문의 어려움을 극복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음.

○ 폴란드의 농업부 장관(Krzysztof Jurgiel)은 현 상황에 대한 폴란드의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생산자들을 위해 EU집행위원회가 모든 가능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줄 것을 촉구했음.

- 그는 시장의 상황이 농업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크게 넘어섰다고 덧붙였음.

○ 폴란드가 제시한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폴란드의 돼지고기 평균가격은 2014년보다 14% 감소했으며 이는 EU 내에서도 감소 폭이 가장 큰 편에 속함.

- 또한 아프리카돼지콜레라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들로 인해 다수의 농업인이 영향을 받았음.

- 낙농업부문에서는 2015년 중반 폴란드의 우유 가격이 2014년 중반보다 거의 20% 떨어졌으며, 심각한 가뭄과 사료 부족으로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고 자료는 밝히고 있음.

○ 폴란드는 여러 가지 시장개입 조치의 도입을 요청하였음.

- 새로운 돼지고기와 낙농업 부문에 대한 집중적인 재정 보상, 수출 환급의 재활성화, EU 매입 가격의 인상과 새로운 돼지고기 개별저장지원금 제도 등이 그것임.

- 또한 폴란드는 러시아가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제3국에 대한 비관세 장벽

을 철폐하도록 노력을 재개할 것을 요청했음.

- 오찬회의 이후에 집행위원(Phil Hogan)은 지난달 종료된 돼지고기의 개별저장지원금 제도가 차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기를 기대한다며 저장된 제품 또한 결국 시장으로 돌아와야 할 것이라고 함.
 - 그는 돼지고기 개별저장지원금 제도가 앞선 2014년의 제도 이후 EU집행위원회가 채택한 두 번째 개별저장지원금 제도라는 점을 강조하였음.
 - 그리고 지난 2주간 시장 가격의 소폭 상승이 있었으며 이런 추세가 계속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음.

□ 스페인, 과일 및 채소류에 대한 지원 호소

- 스페인 대표단 또한 오찬회의 이전에 낙농업부문과 채소류부문에서의 어려운 현 상황에 대해 설명했음.
 - 그들은 EU의 현행 위기관리 조치들은 효과적이지 않으며 이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음.
 - 농업이사회에서 스페인의 농업부 장관(Isabel Garcia Tejerina)은 스페인의 우유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의 낙농업자들은 대안이 없어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음.
- 채소류는 지난 가을, 겨울의 높은 기온으로 인해 수요와 공급 간의 상당한 간극이 있었고 결국 공급과잉의 문제가 발생하였음.
 - 이로 인해 가격은 최근 수년간의 평균치보다 현저히 낮아졌고 일부 상품의 가격은 생산비용에도 미치지 못했음.
 - 토마토의 경우가 특히 그러했는데 금년 제 3국으로부터의 전례 없이 많은 수입량까지 겹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음.
- 이에 따라 스페인은 EU집행위원회에 과채류 생산업자들의 시장 철수(market withdrawal)에 대한 EU의 보상 요율을 높여 줄 것을 요청했음.
 - CAP 규정 하에서 EU가 인정하는 생산자 조직의 회원들은 시장 철수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그러나 러시아의 수입금지 조치로 인해 2014년 말부터 시장 철수에 대해 보다 광범위한 긴급지원 조치들이 적용되고 있으며 2016년 8월까지 유지될 예

정임.

- 그러나 새로운 지원조치들의 적용에도 불가하고 농업인들의 시장 철수는 예상치를 밑돌고 있으며, 스페인의 농업부 장관(Isabel Garcia Tejerina)은 이것이 새로운 지원조치들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하였음.
- 그리고 스페인은 지원 효율을 높일 것을 요구하며, 효율을 높인다고 해도 기존의 생산자조직 규정 하에서는 EU의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함.
- 2월 25일 다른 회원국들과 함께 제출하는 제안사항에서 스페인은 시장 철수 보상 수준을 높이는 것을 주요 요구사항으로 제시할 것으로 보임.

※ 자료: Agra Europe Weekly(2016.02.19.)

EU, 멕시코와 유기농식품에 대한 무역협상 개시

□ EU, 멕시코와 유기농식품관련 무역협상 개시

- EU집행위원회에 따르면, EU-멕시코 간의 유기농식품 시장 확장을 위해 “신속한 체결 (swift conclusion)”을 추구하는 상호협상을 개최하였다고 발표함.
 - 2016년 2월 10일, EU농업위원회 집행위원(Phil Hogan)과 멕시코 농업부 장관 (José Calzada)은 멕시코에서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함.
 - 또한 EU는 콜롬비아와도 멕시코와 유사한 양자 간 협정에 대한 회담을 금주 개최할 예정임.
- 집행위원(Phil Hogan)과 유럽식품 및 농업단체(European food and farming group)대표단은 멕시코(2월 8~9일)와 콜롬비아(2월 10~12일)에 머무르며 EU 농식품 수출기회 강화를 위한 ‘외교 공세(diplomatic offensive)’ 임무를 수행함.
- 집행위원(Phil Hogan)에 따르면 멕시코와의 신속한 무역협정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동 협상은 유기농식품 시장의 확대에 유기농업인들과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표함.
 - 유럽의 유기농부문은 가장 역동적인 생산부문 중 하나가 될 것이며, 멕시코는 유기농업인들과 기업들이 기회를 발굴할 수 있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함.
- 현재 멕시코의 유기농장 생산은 확대되고 있음.
 - 2014년 기준, 유기작물 총 재배면적은 2만 4,500헥타르로 약 10억 6,200만 유로 가치의 10만 4,400톤을 생산함.
 - 토마토, 커피, 쌀과 라즈베리는 멕시코의 주요 고부가가치 유기농 작물임.
- EU는 현재 세계 유기농 시장의 40%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는 43%를 차지하는 미국에 버금가는 수준임.
- EU와 멕시코는 2000년 이후 시행 중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였으며, 지난해 양국은 무역품목을 확대하는 기존의 FTA협상 업그레이드 버전에 동의하였음.
 - ※ 자료: Agra Europe Weekly(2016.02.12.)

EU 회원국, 'EU 동물복지 플랫폼' 제안 지지

□ EU외원국, 새로 제안된 'EU 동물복지 플랫폼' 에 전반적 지지

- EU 회원국들은 독일이 주도하여 제안한 'EU 동물복지 플랫폼'에 대해 전반적으로 지지한다는 반응을 보임.
 - 'EU 동물복지 플랫폼'은 동물복지와 관련한 모범 사례 공유, 기존의 동물복지 법안 실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새로운 법안을 만들지 않는 한 이를 전반적으로 지지한다는 반응을 보임.
- EU 농업부 장관들은 2월 15일 브뤼셀에서 개최된 농업이사회에서 독일,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4개국) 대표단의 '성명서'를 발표함.
 - 4개국의 대표단은 최근(2015년 말) 만료된 현재의 EU 동물복지 전략의 이해 당사자이자 새로운 'EU 동물복지 플랫폼' 관계당국임.
- 4개국 대표단은 2015년 12월 14일, 네덜란드(Vught)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EU는 '공동의 EU 플랫폼' 결성을 통해 동물복지 분야의 세계적 선두 위치를 반드시 유지해야한다"는 선언을 채택함.
 - EU집행위원회에 기반을 둔 '공동의 유럽 플랫폼'은 EU에서 동물복지 기준을 강화하는 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고 결국 동물복지 영역에서 새로운 입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발표함.
 - 동 플랫폼은 비공식적인 수준에서의 회원국 간 초기 논의를 용이하게 할 수 있으며, 동시에 공동사업 추진에 가치 있는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동 플랫폼은 EU집행위원회와 회원국을 위해 보다 효율적이고 일관된 법률 해석 및 구현을 제공하는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언급함.
- 금년 초, 범 유럽 캠페인 단체 'Eurogroup for Animals'는 금년 상반기 동안 해결코자 하는 동물복지 주요쟁점에 대한 문서를 EU이사회 의장국인 네덜란드에 제출한 바 있음.
 - 동 문서는 2016~2020년에 걸친 새로운 동물복지 전략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

한 최근 유럽의회 결의안의 요구가 반영되었으며, EU 전역에 동물복지 규정이 엄격히 시행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유럽의회의원들(MEPs) 또한 동물복지 규정의 불이행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EU집행위원회에 현재 전략 하에서 아직 처리되지 않은 계획의 이행을 위한 노력을 촉구한 바 있음.

□ 대부분 원영, 일부는 우려

- EU 보건 및 식품안전위원회 집행위원(Vytenis Andriukaitis)과 대표단의 과반수는 소위 '플랫폼'의 마련을 위한 협력에 동의하였음.
 - 집행위원(Vytenis Andriukaitis)은 2월 23~24일간 이해당사자 및 회원국 전문가들이 플랫폼의 실현 가능한 형태와 추진방향에 대한 세부정보 공유와 논의를 회의가 개최될 것이라고 덧붙임.
- 최근 EU집행위원회는 동물 보건에 대한 소비자의 의견을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설문조사(Eurobarometer survey)를 시작하였으며, 이는 향후 EU집행위원회가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함.
- 그러나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스페인 대표단은 보다 미온적이고 불안한 지지를 표명함.
 - 동 대표단은 플랫폼 구축에는 전반적으로 동의하지만, 플랫폼은 아이디어와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새로운 법률 채택의 결과물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함.
 - 또한 이미 EU 동물복지 규정은 높은 수준에 도달해있기 때문에 추가된 어떤 요식체계가 강화된 법적 부담이 제3국과의 국제무역에 있어 EU 생산자를 더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할 것이라고 주장함.

□ 기존 규정의 이행

-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새로운 플랫폼의 주요 우선순위가 새로운 전략(strategy)의 수립이나 동물 보건에 대한 새로운 법안을 만드는 것이 아닌, 기존의 EU규정 이행을 보장해야한다고 주장함.
 - 덴마크 농업부 장관(Eva Kjer Hansen)은 이전 전략에서 아직 달성하지 못한 책

무의 적절한 이행을 보장하는 것에 새로운 플랫폼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 EU 보건 및 식품안전위원회 집행위원(Vytenis Andriukaitis)은 "이전 전략의 가치와 원칙은 2015년을 지나도 유효하다"고 주장함.
 - 이전 전략의 일부 조치들이 미완성으로 남아있고, 오랫동안 기다려온 돼지관련 복지지침과 같은 일부 연구 및 보고서는 2016년 상반기에 완성될 것이라고 밝힘.
- EU농업협동조합협회(COPA-COGECA) 또한 새로운 플랫폼의 핵심적인 주안점은 새로운 법안을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의 EU 규정과 적절한 이행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요구하였음.
 - 또한 동물복지의 향후 발전방향은 기존 법안의 간소화와 운영자에게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하고, 그들이 시달리고 있는 높은 관리비용 절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임.

□ 항생제 내성

- EU이사회 의장국 네덜란드(Dutch Presidency)는 EU 내 항생제내성(AMR) 방지에 대한 최근 암스테르담 회담 결과를 농장이사회에서 회원국에게 브리핑한 바 있음.
- 최근 EU집행위원회가 '2011~2016 항생제내성(AMR) 행동계획'에 따라 새로운 EU 전략에 착수하면서, 네덜란드는 6월 예정된 항생제내성(AMR) 방지를 위한 EU이사회 승인을 기대하고 있음.
 - 네덜란드는 식용동물에 대한 항생제 남용은 회담의 중요한 안건으로, 우선순위로 여겨지는 동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공동 행위의 필요성을 강조함.
 - 네덜란드 농업부 장관(Martijn van Dam)은 "보건과 수의학부문 간의 협력뿐만 아니라 박테리아 확산 저지를 위한 국가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자료: Agra Europe Weekly(2016.02.19.)

2015년 EU농식품부문 무역 동향

□ 2015년 EU 대외 농식품 수출, 사상 최대치 기록

- 2015년 EU의 제3국에 대한 농식품 수출이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중국 등 해외 시장 진출 확대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음.
 - 이는 러시아 농식품 수출의 가파른 하락세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높은 수치임.
- 반면 12개월 전반에 걸쳐 수입 또한 상당히 급증하였음.
 - 제3국과의 무역뿐만 아니라 EU 내 농식품 무역 확대로 EU 내 무역수지는 17억 유로의 흑자를 기록함.
- EU와 미국, 남미공동시장(Mercosur), 일본,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간의 양자 및 다자간 무역협정의 호우는 더 많은 세계 생산자에게 시장접근성 높이며 향후 몇 년간 EU 농식품부문의 위신을 잠재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
- 2015년 EU 농식품 수출은 2014년 대비 1,218억 3,700만 유로에서 6% 증가한 1,291억 6,600만 유로이며, 수입은 1,040억 7,100만 유로에서 8.7% 증가한 1,131억 1,000만 유로임.
 - EU 농식품부문 총 무역흑자는 전년대비 177억 6,600만 유로에서 약 10% 감소한 160억 5,600만 유로임.
 - 향상된 수치는 2015년 12월 수출 성과에 기인한 것으로 2015년 12월 수입은 2014년 동월과 비교하여 7.3% 증가한 95억 8,100만 유로이며, 수출은 9.2% 증가된 112억 5,000만 유로임.

□ 미국과 아시아

- EU농식품에 대한 러시아의 수입금지 조치가 계속되자 EU 수출업자는 다른 시장으로 수출 활로를 개척함.
- 미국은 현재 EU의 농식품부문에서 가장 큰 해외시장으로, EU의 대미 무역흑자는

60억 370만 유로에서 74억 270만 유로로 증가함.

- 대미 수출은 2014년 대비 18.5%(30억 290만 유로) 증가하여 2015년 기준 194억 30만 유로를 달성함.
- 미국의 대EU 수출 또한 15.9%(16억 400만 유로)에서 119억 760만 유로로 크게 증가하였음.

○ EU와 미국은 최근 대부분의 농식품부문 무역에서 관세를 줄이거나 면제하는 양국 간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을 협상 중에 있음.

- 그러나 TTIP는 EU가 포괄적 협상에서 미국의 이권에 대한 의문 제기로 협상의 난항이 예상됨.

○ 이와 동시에, 대중 농식품부문 수출은 전년대비 74억 380만 유로에서 39%(27억 810만 유로) 급증한 103억 410만 유로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아시아 국가로부터의 수입 또한 46억 570만 유로에서 51억 460만 유로로 10.5% 증가하였으나, EU 농식품부문 무역흑자는 12개월에 걸쳐 27억 810만 유로에서 51억 950만 유로로 증가함.

○ 또한 EU의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수출은 2014년 35억 780만 유로에서 34%(12억 140만 유로)증가해 2015년 47억 910만 유로를 기록함(출하량 기준).

□ 러시아

○ 미국, 아시아 국가로의 수출 확대는 러시아와의 무역 감소(35억 20만 유로)를 상쇄함.
- 러시아에 대한 EU 수출은 39%(55억 680만 유로) 급락했으나, 다른 국가로의 무역은 5.3%(142.3만 유로) 하락함.

○ 서방국가 시장(Western markets)의 농식품 수입에 대한 러시아의 금지조치는 유효기간(2016년, 8월) 이후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 EU집행위원회 집행위원(Phil hogan)은 세계무역기구 패널(WTO panel)이 돼지 고기에 대한 모스크바와의 분쟁에 있어, EU에게 유리하게 판정할 것이라 확신함.

○ 유럽산 돼지고기 수입금지 조치는, 2014년 8월 단행된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의 보복성 조치로, 이보다 앞선 2014년 1월에 시행됨.

- 러시아는 동 조치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함.
 - EU는 예전부터 수입금지 조치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나라에만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 러시아 시장 손실에도 불구하고, EU의 신선돼지고기, 냉장 및 냉동 돼지고기 수출은 2015년 39억 570만 유로로 전년대비 24% 증가했음.
 - 그러나 우유 분말(8억 430만 유로, 17% 감소), 신선과일(3억 410만 유로, 12% 감소), 그리고 치즈(1억 200만 유로, 3% 감소)의 수출 하락에 따른 손실이 있었음.
 - 이는 러시아의 수입금지 조치나 중국의 낙농제품 수요 위축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라틴아메리카

- 2015년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로 부터의 수입이 모두 증가했다는 것에 주목해볼 때, EU와 남미공동시장(Mercosur)간 자유무역협정(FTA)의 전망이 흥미로워짐.
- 브라질의 대 EU 수출이 전년대비 0.2% 하락하였으나, 총 132억 30만 유로로 여전히 EU농식품 수입의 가장 큰 원천임.
 - 타 지역 수출은 2014년 16억 290만 유로에서 하락하여 15억 940만 유로이었으며, 브라질의 무역흑자는 116억 90만 유로를 기록함.
- 아르헨티나의 수출은 전년 대비 8.8% 증가한 57억 560만 유로로 평가되며 여전히 EU의 세 번째로 큰 농식품 수출국이나, 우루과이로 부터의 수입은 8억 140만 유로로 37.2%나 급증함.
-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의 무역 증대로 남미공동시장의 EU시장 접근성 확대를 우려한 다수의 회원국의 우려가 완화되었으나, 유럽농업협동조합협회(COPA-COGECA)는 여전히 EU의 취약한 쇠고기부문에 대한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위협을 경고함.
- EU집행위원(Phil Hogan)은 농산물 무역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주 콜롬비아와 멕시코를 방문함.
 - 콜롬비아의 EU 수출은 전년대비 21.3% 증가한 20억 540만 유로였으나, EU의 멕시코 수출은 23.8% 증가한 13억 770만 유로임.

□ 터키, 튀니지 그리고 베트남

- 터키는 지난해 대 EU 수출이 20.9%(8억 620만 유로) 증가한 49억 930만 유로로 두 번째로 크게 증가함.
- EU의 대 터키 수출 또한 34억 80만 유로로 약 20% 증가했으나, 현재 EU는 터키에 15억 850만 유로의 무역적자를 보임.
 - 터키 또한 현재 러시아의 특정 식품 수입금지 조치로 인해 2016년에는 더 많은 터키산 농식품이 결국 EU시장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존재함.
- 2014년 기준 튀니지는 EU에 2억 81만 유로의 농식품 무역적자를 보였으나, 2015년 기준 1억 420만 유로의 흑자로 돌아섬.
 - 북아프리카 국가는 최근 올리브오일 수입에 대해 2016, 2017년에는 추가적으로 면세의 관세율할당(TRQ)을 적용받게 됨.
- 또한 2015년 베트남으로의 EU 농식품 수출은 전년대비 3억 770만 유로 증가한 22억 600만 유로로 상당한 증가세를 보임.
- EU와 베트남은 지난해 자유무역협정(FTA)에 있어 최근 합의에 이르렀고, 이번 달 초 협정문을 발표함.
 -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한 EU 농식품 수출품목에는 유아전용식품, 맥아, 애완 동물 식품 및 사료가 포함되었음.

□ 무역협상이 농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EU집행위원회는 EU농업부문에 대해 향후 자유무역협정(FTAs)에 따른 “누적효과”에 관한 연구 수행을 결정함.
 - EU집행위원(Phil Hogan)은 2월 15일 농장이사회 이후 동 결정을 발표하였으며, 연구는 6개월 이내 완료될 것이라고 밝힘.
- EU집행위원(Phil Hogan)은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이 주요 우선순위로 남아있고 그밖에 EU는 일본과의 FTA협상을 계속해서 기대한다고 밝힘.
 - EU집행위원회는 일본과의 협상에 유의미한 시장접근성과 EU 지리적표시(GIs)에 대한 높은 수준의 보호가 포함되길 원한다고 밝힘.
 - 또한 필리핀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회담은 4월로 예정되어있다고 덧붙였다.

□ 뉴질랜드, 호주, 남미공동시장(Mercosur)

○ EU집행위원회는 뉴질랜드 및 호주와 계획된 FTA 협상에 관해, 올해 말까지 영향 평가 결과와 이해관계자 협의를 얻어 2017년 회담을 개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힘.

- 특히, 유제품, 쇠고기와 양고기 같은 매우 민감한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것이라고 강조함.

○ EU집행위원(Phil Hogan)은 남미공동시장(Mercosur)에 대해 현재 협상안을 교환하기로 결정했고, 그 밖에 EU 회원국과의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힘.

- EU농업부문을 위해 무역협상의 전반적인 결과가 경제적·정치적으로 용인되고,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적절한 균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임.

※ 자료: Agra Europe Weekly(2016.02.19.)

EU, 유기농부문 지속적인 성장 전망

□ '세계 유기농업: 통계와 발전 동향 2016'

- 독일 유기농업연구소(Research Institute of Organic Agriculture, FIBL)와 세계유기농업 운동연맹(IFOAM)이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EU 회원국들의 1인당 유기농 제품 소비 및 판매량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 2014년 기준 EU의 농업을 목적으로 한 유기농 토지는 전년보다 5.6% 증가했으며 스페인과 이탈리아, 프랑스에서 그 증가폭이 가장 컸음.
 - 2014년 EU 28개국 내 총 1,024만 9,000헥타르가 유기농 농산물 생산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이는 2013년의 970만 1,000헥타르보다 증가한 수치임.
- 전 세계적으로는 유기농으로 관리되는 토지의 양이 약 50만 헥타르에서 2014년에 4,370만 헥타르로 증가함.
 - 호주는 가장 넓은 유기농업 토지를 가지고 있는 국가이며(총 1,720만 헥타르, 이 중 97%는 목초지로 사용됨), 그 뒤를 이어 아르헨티나(310만 헥타르), 미국(220만 헥타르) 등이 있음.
 - 세계 유기농업 토지의 약 40%는 오세아니아(1,730만 헥타르)에 속하며, 그 뒤를 이어 유럽(1,160만 헥타르, 이 중 EU 비 회원국은 27%), 라틴아메리카(680만 헥타르)순임.

□ EU의 유기농업 토지

- 동 보고서에 따르면 EU에서 전년 대비 가장 유기농업 토지의 증가량이 높았던 나라는 스페인이라고 함.
 - 스페인의 유기농업 토지는 전년 대비 10만 346헥타르가 증가했으며 이는 6.2% 증가한 수치임.
 - 이로 인해 스페인의 전체 유기농업 토지는 총 171만 헥타르로 EU 전체 유기농업 토지 중 16.69% 수준이며 이는 EU 회원국 중 가장 넓은 유기농업 토지임.

- 이탈리아의 유기농업 토지는 2014년에 5.4%(70,736 헥타르) 증가하여 총 138만 7,000헥타르가 되었으며 이는 전체 EU의 13.54%에 해당하는 수준임.
- 프랑스의 유기농업 토지는 약 5.5%(5만 8,089 헥타르) 증가하였으며 총 유기농업 토지면적은 118만 헥타르로 EU전체의 10.92%를 차지함.
- 유기농업 토지 감소폭이 가장 큰 나라는 그리스로 2013년에서 2014년 사이에 유기농업 토지의 약 1/3이 감소(-33.2%, -12만 7,475헥타르)하였음.
- 또한 영국(-6.7%, -3만 7,243 헥타르), 폴란드(-1.8%, -1만 1,961 헥타르), 루마니아(-4%, 1만 1,896 헥타르), 헝가리(-4.8%, -6,177 헥타르) 등에서도 유기농업 토지의 감소가 나타났음.

□ 전세계 농지 중 유기농업 토지 비율

- EU에서 전체 농지 면적 중 유기농업 토지의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오스트리아(19.4%)임.
 - 그 뒤를 이어 스웨덴(16.4%), 에스토니아(16.2%), 체코공화국(11.1%), 이탈리아(10.8%) 순이었음.
- 반대로 가장 유기농업 토지 면적의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몰타(0.3%)임.
 - 그 다음으로 아일랜드(1.3%), 루마니아(2.1%), 불가리아(2.4%), 네덜란드(2.5%)가 뒤를 이었음.
- 반면, 슬로바키아의 유기농 생산자가 평균적으로 가장 넓은 유기농업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음.
 - 슬로바키아에 등록된 유기농 생산자는 403명으로 총 18만 307헥타르의 유기농업 토지를 경작하며 이는 평균 447.4헥타르 수준임.
 - 슬로바키아의 뒤를 이어 영국(147.9 헥타르), 체코공화국(122.3 헥타르), 에스토니아(100.9헥타르), 스웨덴(92.8 헥타르) 순이었음.
- 유기농 생산자 당 평균 유기농업 토지 면적이 가장 좁은 나라는 몰타(3.4 헥타르)임.
 - 다음으로 키프로스(5.2 헥타르), 슬로베니아(12.5 헥타르), 그리스(12.7 헥타르), 불가리아(19.1 헥타르) 순이었음.
- EU에서 가장 유기농 생산자가 많은 나라는 이탈리아(4만 8,662명)였으며, 뒤를 이어 폴란드(2만 4,829명), 프랑스(2만 6,466명), 독일(2만 3,398명), 오스트리아(2만

2,184명) 순이었음.

- 전 세계에서 가장 유기농 생산자 수가 많은 국가는 인도(2013년 기준 65만 명)였으며, 뒤를 이어 우간다(19만 552명), 멕시코(16만 9,703명) 순이었음.

□ 유기농산물 판매량

-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의 유기농산물 판매량이 2014년 소매 판매 기준 79억 1,000만 유로로 EU에서 제일 높았음.
 - 이는 전 세계 1위인 미국(271억 유로)에 이어 두 번째에 해당하는 규모임.
 - 2014년 세계 유기농산물 시장 규모는 600억 유로 이상을 기록했음.
- EU 내 유기농산물 시장 규모가 두 번째로 큰 나라는 프랑스(전 세계 기준 3위)였으며 48억 3,000만 유로의 판매액을 기록했음.
 - 그 다음으로 영국(23억 700만 유로), 이탈리아(21억 4,500만 유로), 스웨덴(14억 20만 유로)가 뒤를 이었음.
 - 이 중 스웨덴의 유기농산물 시장 규모는 2014년 기준 전년 대비 40% 급성장했음.
- 총 농산물 판매액 대비 유기농산물 판매액 비율을 보면 덴마크가 7.6%로 EU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음.
 - 다음으로 오스트리아(6.5%), 독일(4.4%) 순이었음. 그러나 영국 등을 포함하여 이에 대한 자료가 없는 국가들도 있었음.
 - EU 회원국을 제외하고는 스위스가 7.1%의 비율을 보였으며 미국은 5%의 비율을 나타냈음.
 - 스위스는 1인당 유기농산물 소비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221유로, 2014년 기준), 뒤를 이어 룩셈부르크(164유로), 덴마크(162유로) 순이었음.

※ 자료: Agra Europe Weekly(2016.02.19.)

EU, WTO의 중국 시장경제 지위 인정에 따른 여파 대비

□ EU, WTO의 중국 시장경제 지위 인정에 대비에 반덤핑규제 권리 유지

- 유럽의회 총회에서 EU무역위원회 위원(Cecilia Malmström)은 WTO에서의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 인정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함.
 -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회원국들이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를 금년 말까지 인정할 것을 요구함.
- EU는 중국을 시장경제로 인정하는 대신 WTO를 통한 반덤핑 조치를 취할 권리를 유지하기로 함.
 - 금주(2월 1일) EU무역위원회 위원(Cecilia Malmström)은 유럽의회에서 이로 인해 EU 내 약 8만 개의 일자리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언급함.
 - 중국을 '시장경제'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대비하기 위해 EU는 중국의 덤핑 수입품으로부터 EU를 보호할 새로운 제도를 찾고 있음.
- 2011년 WTO에 가입한 중국은 '중국의 시장경제 이행에 관한 가맹 의정서'에 따르면 금년 12월 11일까지 자동적으로 중국의 시장경제국 지위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함.
 - 그러나 해석에 대한 법적·정치적 공방이 지속되고 있음. 그리고 중국은 무역 상대국을 시장경제로 분류하는 EU의 기술적 기준 다섯 가지 중 한 가지 기준만을 충족하고 있음.
 - 중국은 지금까지 EU의 반덤핑, 반보조금 조사 대상 제1순위 나라로, 보조금이나 덤핑으로 인한 불공정경쟁 관련 조사 사례의 약 80%가 중국과의 교역에서 발생하고 있음.
 - 일례로 2014년 말 EU는 중국 태양광 패널 수입에 대해 반덤핑, 반보조금 조치를 취하였음.
 - 동 문제에 대해 2013년 중순 실시된 EU의 초기 조사에 대응하여 중국도 EU의 포도주 수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바 있으며, 현재는 해결된 상태임.

□ WTO 규정과 일자리 위기

- WTO의 규정 하에서 EU가 중국을 시장경제로 인정한다는 것은 EU가 중국의 수출 품에 대해 ‘비 시장경제’ 조치들을 더 이상 취할 수 없음을 의미함.
 - ‘비 시장경제’ 조치는 시장경제 국가에 대한 조치보다 강력한 반덤핑 관세를 허용하는 것임.
- 유럽의회 총회에서 EU무역위원회 위원(Cecilia Malmström)과 다수의 유럽의회 의원들은 반덤핑 관세의 상한선이 낮아지는 것은 큰 문제라고 입을 모았음.
 - 예비위원회는 대응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중국의 덤핑 제품으로 인해 EU 내 7만 7,000여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추정함.
- EU무역위원회 위원(Cecilia Malmström)은 유럽의회 의원들에게 EU집행위원회가 두 가지 옵션을 두고 EU 일자리와 산업에 대한 잠재 영향을 철저히 평가 중이라고 밝혔음.
 - 첫 번째 옵션은 현재 EU의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12월에 중국을 시장경제국으로 인정하는 방안임. 즉, 이는 WTO규정 위반에 해당하며 중국의 보복성 조치가 예상되는 방법임.
 - 두 번째 옵션은 WTO가 인정할만한 새로운 반덤핑 규제를 제안하는 것임.
 - EU무역위원회 위원(Cecilia Malmström)은 세 번째 “비현실적인” 옵션은 간단히 EU의 반덤핑 규제 대상국가에서 중국을 빼고 수만 개의 일자리를 위협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함(즉, 반드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음).

□ 유럽의회의 요구

- 유럽의회 의원 중 다수는 새로운 반덤핑 규제 조치를 구상하는 계획을 지지했으며, 이 중 다수가 EU의 철강산업 부문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요청하였음.
 - EU의 철강산업 부문은 중국과의 불공정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스코틀랜드 의원(David Martin, 유럽의회 사회민주당 그룹의 무역부문 대변인)은 EU집행위원회의 행동을 촉구하며 중국의 불공정 보조금을 지원받는 수출품의 만만한 상대가 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하였음.
 - 불공정한 경쟁에 대해 적절한 보호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을 보호무역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며 EU는 신속히 동 문제에 대한 방어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함.

- 현재 EU의 무역 방어 수단 현대화 안건은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인해 이사회에서 계류 중임.
- 중국의 시장경제국 지위 인정에 대응하기 위해 EU의 규정을 변경하려면 유럽의 회와 EU이사회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함.
 - 호주 등 일부 WTO 회원국들은 이미 중국을 시장경제국가로 인정하였음.
- WTO 회원국들의 모든 반덤핑, 반보조금 규제는 WTO 규정을 준수하는 한 합법임.
 - EU는 어떤 회사가 제품을 정상적인 가치 이하의 가격(제품의 국내 가격 또는 생산비용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EU에 수출하면 덤핑으로 간주하고 있음.
 - 농식품부에서 EU-중국 간 무역관계는 지난 여름, 양측이 EU의 지리적 표시(GIs)를 인정하는 포괄적인 협상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약간의 진전이 있었음.

※ 자료: Agra Europe Weekly(2016.02.05.)

중국, 'Syngenta' 430억 달러에 인수

□ 중국, ChemChina, Syngenta 430억 달러에 인수

- 중국의 국유기업인 중국화공그룹(ChemChina)은 스위스의 종자 및 농약생산 기업인 Syngenta를 430억 달러에 입찰했으며 이는 중국 기업의 외국 기업 인수합병 사례 중 최대 규모임.
- Syngenta의 회장(Michel Demaré)은 금번 인수합병으로 인해 Syngenta가 중국에서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함.
 - Syngenta의 회장(Michel Demaré)은 ChemChina는 미래 산업에 대한 야심찬 비전과 15억 인구의 식품공급 안정화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기술의 확보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언급함.
 - 그러나 Syngenta는 계속해서 스위스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스위스가 기업하기에 매력적인 국가라는 것을 강조함.
 - Syngenta의 주식은 미국 경쟁기업인 Monsanto의 460억 달러 규모의 주식 공개매입 이후로 지난 12개월간 거의 40%수준 상승함. 동 거래는 독점방지를 이유로 기각되었음.
- Syngenta의 CEO(John Ramsay)는 별다른 규제 장벽은 없으며, ChemChina가 입찰에 대한 재정문제도 이미 해결하였다고 밝혔음.
 -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규제 승인 문제에 관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며, 독점규제 당국이 두 기업의 시장 간 중복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인정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또한 미국 재무부 산하기관인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가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음.

□ 추가적인 진술

- ChemChina의 Syngenta 인수는 지난 12월에 발표된 Dow Chemical과 DuPont간의 합병(1,300억 달러) 이후로 화학산업 분야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인수합병이 될

것임.

- 인수합병이 완료되면 중국이 해외기업을 대상으로 한 최대의 인수합병이 될 것이며, 이는 2012년 CNOOC가 캐나다의 Nexen을 177억 달러에 인수한 것의 두 배 규모에 해당함.
- 지난 1월, ChemChina는 독일의 산업기계 생산회사인 KraussMaffei그룹을 약 10억 달러에 인수한 바 있음.

○ 이스라엘의 ADAMA Agricultural Solution 또한 지난 12월 ChemChina 그룹의 계열사인 중국 작물보호제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자국 내 혼합 작물보호제 시장에서 독점적인 기업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음.

- 동 제품의 판매액은 2015년 기준 약 9,000만 달러 규모인 것으로 추산됨.
- 이로 인해 ADAMA는 수백 가지의 상품 등록 정보를 얻게 되었으며 중국 시장으로의 진출을 가속화할 수 있게됨.
- 중국기업 간의 협력 하에서 ADAMA는 상품 판매네트워크와 고객을 크게 확장할 수 있게 되었음.
- 이는 중국의 5개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170명 이상의 마케팅, 영업, 사무직 사원들이 ADAMA의 판매 인력으로 충원되기 때문임.

□ 중국 내 작물보호제 판매망

- 중국이 전 세계 작물보호제 주요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시장인 이유는 중국이 세계 최고의 농산물 생산국이기 때문임.
 - 특히 쌀, 밀, 감자, 고구마, 사과, 제1위 생산국임.
- 중국에는 약 4억 8,000만 명의 농업인이 있고 이들 중 대부분은 평균 농가규모가 0.5~0.6헥타르 수준의 소규모 농가임.
 - 이로 인해 중국 내 작물보호제, 비료와 같은 농업 생산요소의 유통에 큰 어려움이 있음.
 - 또한 중국은 농업부문에서의 환경문제에 대해 더욱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특수 비료와 생물 농약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음.
- 중국의 작물보호제 시장은 현재 지방단위 수준에서 52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며 이는 세계 3위의 시장규모에 해당함.

- 시장 내 작물보호제 제품의 3분의 2는 상표가 없는 것임. 즉, 지역 내 생산품이 65%를 차지함.
 - 반면 수입 상품은 나머지 35%를 차지함(자료: Agrow on Pesticide Distribution Channels in China).
- 연구에 따르면 중국 전역의 농업인들에게 작물보호제 상품을 유통하기 위한 복잡한 유통망이 존재한다고 함.
- 적용하는 모델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5단계의 유통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일부 단계는 생략되거나 우회되기도 함.
- 중국 역내의 회사들은 성 단위의 거래처를 통해 제품을 유통함.
- 이로 인해 다국적기업들은 중국의 국가 기관이나 지역 유통망을 활용하고 있음.
 - 다국적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작은 판매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보다 선택적이고 통제된 유통전략을 취하고 있음.
 - 다국적기업은 제품의 수요를 늘리기 위해 마을이나 개별 농가 단위의 체험 행사나 관측활동을 진행함.
- 그러나 ADAMA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유통망은 통합되는 과정에 있음.
- 먼저, 농업인들이 도시로 이주함에 따라 농촌인구가 줄고 있음.
 - 다음으로 유통망의 각 단계를 생략하거나 유통업자들이 합병함으로써 인해 유통망의 합리화가 진행되고 있음.
 - 계획경제 시기(1949-1979년)에는 5단계의 유통망 구조가 일반적이었던 반면 현재는 2, 3단계의 유통 단계가 일반적임.
 - 그러므로 ChemChina와 Syngenta의 합병으로 중국 내 유통망의 통합이 지속될리라는 전망은 분명한 것으로 보임

※ 자료: Agra Europe Weekly(2016.02.05.)

자료 작성: 흥예선 연구원